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30, 개정판 12-13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마지막 세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이야기한 다양한 해석 방법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방법의 예로서 또 다른 신약성경 본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꼭 방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텍스트를 통해 작업하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하고 싶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12장부터 읽고 싶습니다. 특히 계시록과 같은 본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책은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먼저 들려야 할 것이었고, 우리 눈앞에 굴러다니는 이미지와 계속되는 드라마를 듣는 것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장만 읽고 13장만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웠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용은 충분히 강하지 못했고, 그들은 천국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는 그의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만큼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들아, 그 안에 거하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너희에게로 갔음이니라 그는 자신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보고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나 세 때 반을 양육받게 되니라 일부 번역에서는 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처럼 토해 여자를 붙잡고 급류로 그 여자를 쓸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은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켜서 여자를 도왔습니다.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리고 1절에 보면 용이 바다 해변에 섰더라.

그리고 13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탄이 바다 해변에 서 있을 때 두 명의 도우미를 불러들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3장에서 다른 두 짐승의 형태를 발견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이 두 짐승은 여자의 후손을 쫓아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시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이해하기 전에 이를 역사적 맥락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맥락이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고대 소아시아 지역, 즉 현대의 터키 서부 지역에 위치한 일곱 교회에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그 일곱 교회는 모두 그리스-로마 제국, 로마 통치 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흥미롭습니다. 일곱 도시 대부분이 모두 황실 사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황제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원입니다. 또는 그들은 이교 신들에게 바쳐진 사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경계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나 시민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교 신들뿐만 아니라 황제 자신을 위한 숭배 활동에 참여하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거나 일반적으로 로마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로마는 제국 내부와 국경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와 경제적 번영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로마와 황제에게 감사의 빛을 쬐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로마, 로마 통치, 로마 황제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후원자-고객 관계, 후원자-고객 역학이 아마도 로마의 신민과의 관계에서 로마 황제와 함께 작용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로마와 황제는 그것이 제공하는 평화와 경제적 번영 측면에서 국민의 복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와 황제에게 감사의 빛을 쬐고, 이를 고객의 후원자에 대한 적절한 표현으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로마의 정치적, 경제적 삶이 종교적인 삶과 밀접하게 얽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로마는 종종 여신 로마와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미 이 모든 도시가 황제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사원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국 숭배, 황제를 숭배하는 시스템의 관점에서 빛을 보여줍니다. 황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황제뿐만 아니라 다른 로마 신들에 대한 충성을 보여줍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업이나 사업기회는 섬유업이든, 상업이든, 심지어 해운업에 종사하는 무역이든, 거의 대부분이 황제를 숭배하는 행사로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또는 이교도 신들. 따라서 이교 숭배나 황제 숭배 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와 로마 사회의 생활과 문화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관습과 우상 숭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충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일부 기독교인들은 로마 생활, 특히 제국 숭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황제와 다른 이교 신들을 숭배할 기회를 거부했으며,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배타적인 예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실직이나 다른 유형의 박해를 통해 그 결과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미 한 사람이 사망했지만, 제국 전체에 널리 퍼져 있거나 공식적으로 승인된 박해 같은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박해, 특히 죽음을 초래한 박해는 지역 차원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고, 더 산발적이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순응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은 지역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도시가 참여를 거부하고 황제 또는 심지어 다른 이교도 신들에게 충성을 표하거나 숭배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황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 배은망덕하거나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응에 대한 대부분의 압력은 지역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또 다른 대응은 타협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경제에 기꺼이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부유해지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황제 숭배라는 전체 종교 체계와 심지어는 다른 이교 신들의 숭배에도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즉 이 현실과 씨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여러 날짜가 제안되었지만 가장 대중적인 것은 요한계시록이 1세기 말경, 실제로는 1세기의 마지막 10년 중반쯤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로마서 6장 본문과 달리 장르비평하에서 한동안 이야기해왔던 요한계시록의 장르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장르가 독특하게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그것은 종말의 장르에 속하거나 적어도 우리가 이 문학적 유형에 부여한 라벨입니다.

그것은 천상의 세계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선견자의 환상적 경험을 기록하는 일종의 문학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독자가 자신의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묵시록이라는 문학적 장르로 글을 쓰면서 독자들이 그들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깨어나 실제로 위태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상황에 대한 다른 관점, 즉 요한이 요한에게 계시한 초월적이거나 천상의 관점을 보기 위해 그는 이제 그의 교회에 글을 통해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언이기도 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선포, 곧 위로의 관점에서 전하는 메시지이지만 또한 권면과 경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또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상황과 상황에 부합 하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읽을 때, 요한이 결코 의도할 수 없었고 그의 독자들이 결코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이미지나 상징 또는 본문 전체에 대한 해석은 아마도 거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런 말을 너무 자주 하지 않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11장에서 두 증인을 묘사하거나 논의하는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두 증인의 토론은 나팔의 맥락에서 교회의 역할을 묘사합니다. 출애굽기를 모델로 한 8장과 9장의 나팔 재앙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곱 나팔을 묘사한 후, 이제 11장에서 요한은 이 모든 것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함을 두 증인의 관점에서 묘사합니다. 반대와 고난 속에서도. 흥미롭게도 요한은 11장에서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을 묘사하며 이 두 증인과 전쟁을 벌입니다.

실제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은 근원이 무엇인지, 교회 갈등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 11장보다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증인, 즉 교회와 짐승 사이의 갈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12장부터 13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짐승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사이의 갈등을 더욱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2장과 13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일부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질문해야 합니다. 12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떤 사건들이 언급될 수 있습니까? 언제 발생합니까? 이것은 1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묵시록과 예언으로서의 계시록에 고유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12장부터 13장은 하나의 단위를 이루기 때문에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주로 이 세 짐승과 여자와 그 자손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개의 짐승이나 짐승 또는 용의 뱀 모양의 인물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12장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용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13장에서는 실제로 용과 매우 유사한 용어로 묘사되는 두 명의 다른 짐승 같은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용이 더 많은 도움을 찾고 있거나 소환할 준비가 된 것처럼 해변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비슷하고 12장의 용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묘사되는 두 짐승 같은 인물을 불러서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12장과 13장은 하나의 단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 짐승 같은 형상은 아마도 일부 해석가들이 불경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언급된 내용과 대조됩니다. 전능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곱 영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성령이십니다.

이제 그것의 패러디로서 우리는 용이라는 부정적인 삼위일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제1의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짐승은 아마도 성령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일치여부 여부에 따라 약간의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 짐승의 형상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삼위일체 사이에는 분명한 패러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범위를 좁혀 12장과 13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장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모두 첫 번째 기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그들이 언급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러티브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시록 장르의 일부가 환상적 경험에 대한 서술적 설명이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내러티브 문학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움직임,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를 분리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텍스트와 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12장에서 우리가 소개하는 첫 번째 흥미로운 상징은 머리에 12개의 별이 있는 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대부분은 구약에서 나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예수님의 추종자들과 합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장 끝부분에서 누가 지키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12장과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입니다.

분명히 그의 교회, 즉 예수의 추종자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그의 교회. 저자는 하나가 다른 것과 병합되는 시기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로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을 묘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될 12장은 이야기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곧 아이를 낳을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정체를 살펴보기에 앞서 작가는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한다. 이 본문에서 기능하는 이 흉측한 용은 여자를 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구약의 환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명히 확인되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시편 2장과 8절에 대한 명확한 암시입니다. 구약의 시편은 종종 왕의 시편이나 메시아 시편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신약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구약성경을 언급하면서 이 여자가 임신한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아 통치자, 다윗의 아들.

시편 2장의 말씀대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이제 용이 이 아이를 삼키고 멸하려고 여자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아이는 이 용의 손아귀나 이빨에서 구출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용을 좌절시키고 용의 먹이를 빼앗는다. 이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언급할 다른 이야기와 명확하게 동일시할 수 있지만.

또한 그리스-로마 세계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반영합니다. 즉, 비슷한 이야기나 서술을 따르는 그리스-로마 신화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아들을 낳을 여신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쫓아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 용이나 짐승의 형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아들이, 때로는 여자가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에서는 아들이 자랄 때까지 섬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애초에 여자를 쫓고 있던 용을 죽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들은 그리스-로마 신 중 하나인 신입니다. 그러나 존은 그 신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통의 이야기를 취하고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역사적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12장을 읽고도 적어도 요약된 형태로 보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매우 다른 형태, 더욱 상징적인 형태로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올려져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실제 삶,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언급을 압축된 형태로 봅니다.

그리하여 아들을 죽이고 파괴하려는 용의 시도는 좌절되었습니다. 나중에 9절에서 용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시 저자는 이 용을 구약성서의 언급과 연결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용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하시니라.

고대 뱀에 대한 언급은 계시록 12장의 이 용을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인 뱀과 분명히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그를 악마인지 사탄인지 식별합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한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그의 목적에 대한 주요 적대자를 지칭합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창세기에 대한 언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다른 중요한 참고 사항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여자가 사막으로 도망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이 지리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점에서 사막은 단순히 보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광야로 피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이 그녀를 쫓아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십니다.

따라서 이 여성은 문자 그대로의 실제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다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자, 아내, 야훼의 신부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언급하는 구약의 개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을 사막으로 피신하게 함으로써 이것은 그녀의 보존과 안전을 명백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으로 알려진 이 용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지키고 돌보십니다. 그러나 7-9장에는 사탄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전쟁을 벌이고 패배하여 하늘에서 쫓겨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본문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아마도 이것은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하여 추가 설명일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아마도 연대순으로 1-6 이후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용이 이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나는 7-12절이 1-6절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사이에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묵시문학은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반영하여 초월적인 하늘 현실을 다룬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요한은 진정한 묵시적인 방식으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1-6절에서 소개한 이 용과 싸우는 천국의 전쟁에 대한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 즉 그의 천사들, 그리고 그들은 싸우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8-9절에 보면 사탄이 쫓겨나고 패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제 생각에는 10-12절을 읽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0-11절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음성은 종종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 하늘의 목소리, 찬송가, 천사 같은 존재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나 음성, 노래는 종종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10-11절은 아마도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을 물리치는 사건을 해석한 것 같습니다.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르렀으니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7-9절.

그들이 그를 이겼으니 곧 이 고소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여기노니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느니라. 나는 7-9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패배하는 것을 다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궁극적인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7-10은 10-12의 이 음성으로 해석되어 1-6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패배한 진정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그가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지, 왜 여자를 쫓는지, 그리고 왜 그녀를 구출하고 안전을 얻기 위해 광야에 가두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12절).

쫓겨난 용, 마귀는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13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읽을 내용은 12장의 첫 부분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입니다. 사탄은 패배하여 쫓겨났고, 아이를 파괴할 능력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그는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죽음은 용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의 때가 얼마 없음을 아시고 그 여자와 그 후손에게 진노와 분노를 터뜨리시리라. 그러면 12장의 나머지 부분이 나옵니다.

용이 자기가 내쫓긴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일컫는 여자를 쫓으니라. 그러나 아마도 이제 그 여자는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 그 이상일 것입니다. 여자에는 12장이 끝나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내용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읽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으로서, 요한계시록의 장르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읽어보라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은 여자와 그녀의 자손 사이에 대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여자와 그 후손은 다른 누군가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여자와 그 후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두 개의 별도 엔터티입니까? 글썄,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럴 것 같지만, 진정한 묵시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 읽어야 하므로 여자와 그 후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수준.

상징적인 수준에서 그들은 아마도 둘 다 같은 것을 지칭할 것입니다. 여자와 그녀의 후손은 아마도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할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6절에 보면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곳으로 가서 1260일 동안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용이 여자 뒤를 쫓으며 이 아이 곧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과 사탄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에서 쫓겨나 패배하고 이제 진노하여 이 여자를 뒤쫓는데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그 여자는 광야에 자기를 위해 예비된 곳으로 날아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이미지 모두에서 이 여자가 사탄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즉 사막으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난 후, 17절부터 모든 시도 끝에 이 여자를 멸하려고, 그가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땅이 열리고 그 여자를 멸하려는 사탄의 시도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보존되고, 사탄은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서 화를 내며 그 여자의 나머지 후손들을 쫓아갑니다. 분명히 그가 공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와 자녀가 같은 것을 가리킨다면 사탄이 어떻게 여자를 공격하지 못하고 그 여자의 후손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엔 이것이 요한이 제안하는 방식인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보호되고 보존되며, 사탄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파괴하거나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자의 관점이다.

하지만 그 여자의 자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은 특히 영적으로 해를 입거나 멸망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박해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의 백성을 옹호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탄이 아무리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후손의 관점입니다. 비록 그가 교회에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교회는 해를 입거나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실 그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아마도 동일한 실체, 즉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보존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 용의 손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싶은 마지막 두 가지 사항은 우리가 이미 14절에서 삼년 반, 즉 때와 때와 반 때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과거나 미래의 특정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3년 반은 1세기부터 시작된 교회의 박해 전체 기간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교회가 로마 통치 하에서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기독교인이나 고통을 겪지 않지만 타협을 멈춰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기독교인을 위해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존은 그들이 갈등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반을 단순히 교회가 존재하는 전체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교회가 주로 사탄의 사주를 받아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교회와 세상과의 투쟁의 전체 기간의 배후에는 다름
아닌 사탄 자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추가해야 할
또 다른 차원은 9절에서 사탄에 대한 언급으로 돌아가서 그가 옛 뱀으로
묘사되어 창세기 3장과 명확한 상호텍스트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본문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선 나는 창세기 3장 15-16장을 읽고 그
본문이 우리 귀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으로 돌아가
가능한 일치점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으로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직후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로 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주로 속이는 자로 묘사되며, 이것이 바로 그가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써 죄를 짓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은 15절과
16절에서 뱀과 여자에게, 뱀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즉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인 네가 그의 발꿈치 곧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리라.

이제 그 모든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읽어 보십시오.

이 내용은 여자와 용 사이의 갈등, 즉 여자와 용 사이의 아들을 둘러싼 싸움 또는 갈등으로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용은 여자를 쫓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첫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일어나는 일은 용이 여자를 따르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따르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씨앗의 언어에 주목하세요.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용의 씨가 여자의 씨를 따를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계시록 13장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두 짐승 같은 인물은 용의 씨앗입니다. 그들은 그와 똑같이 묘사됩니다.

그는 그들을 소환하기 위해 12시가 끝날 무렵 해변에 섰다. 따라서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있습니다. 12장에는 용과 여자의 싸움이 있고, 13장에는 용의 씨와 12장과 13장에 여자의 씨의 싸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상함,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언급은 단순히 사탄이 아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여자의
씨인 아들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부서진 용의 머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7~12장에 나오는 사탄의 싸움과 패배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넘어 보면 이것이
특별히 용에 대한 언급은 아니지만 용의 자손 중 하나에 대한 언급이지만, 용과
똑같이 묘사된 첫 번째 짐승이 그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13장 3절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 그 짐승의 머리들 중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 같더니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습니다.

이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특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지금 살아 계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짐승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짐승은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정말 강력해요. 그러나 둘째, 나는 이것이 아마도 창세기 기록에 대한
암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용의 추종자 중 한 사람, 그의 자손 중 한
사람의 머리를 으깨어 용의 머리를 치는 파괴적인 타격입니다.

또한 12장의 맨 처음 부분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주목하십시오. 그 여자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해산을 앞두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는데, 이는 아마도 창세기 3장 16절과 그 여자가 고통을 통해 해산하고, 자녀를 낳을 것이며,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것이라는 약속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대한 이 암시의 해석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본문의 의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12장과 13장에서 진행되는 일 중 하나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독자들이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으로 돌아가서, 로마제국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손에 적대감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이것은 이제 그들의 갈등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한 일은 1세기의 갈등을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더 큰 이야기나 이야기의 일부로 두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이 로마의 손에서 겪고 있는 일은 놀라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갈등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창조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속되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의 일격을 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으며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세기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다름 아닌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갈등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원수, 원수인 사탄을 치명타로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분의 때가 짧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각에서 자신의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압도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들은 당시의 1세기 교회 투쟁의 진정한 성격을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경험적으로 그들은 로마 제국과 순응에 대한 압력, 그리고 로마 제국이 행하는 모든 일을 바라보고 봅니다. 그러나 존은 진정한 묵시적인 방식으로 다른 관점을 묘사하며 상황이 실제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세상에서 보는 것 뒤에는 이 오랜 투쟁과 심지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결정하는 천상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넓은 의도의 맥락에서 그들의 갈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3장에서는 제가 말했듯이 사탄의 두 무리가 소개됩니다. 그는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다른 두 명의 추종자를 소환하기 위해 바다 위에서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은 아마도 구약성경에 모두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짐승같은 형상이나 용과 같은 형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1장 9절을 보았습니다. 라합, 꿩뿔린 뱀, 바다의 뱀.

따라서 묵시문학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바다와 관련된 짐승에 대한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종종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라벨이 붙은 두 짐승의 개념을 발견합니다. 요한은 그 본문과 다른 본문을 옆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짐승이나 용과 같은 인물을 취하고 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사람이나 국가를 지칭하는 다소 전통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아마도 뒷받침하기 위해, 제가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는 먼저 이 짐승같은 인물들이 전달하는 의미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은 무엇을, 누구를 지칭할까요? 그래서 우선, 구약성서나 묵시문학, 심지어 그리스-로마 문학에서 짐승이나 뱀 같은 형상을 사용함으로써, 짐승이나 뱀 같은 형상은 대개 악과 혼돈, 적대, 파괴의 특징을 상징합니다., 생명과 질서에 반대되는 모든 것 등.

그래서 요한은 짐승을 언급함으로써 묘사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전달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무엇을 언급하든 그는 그것을 과거의 짐승 같은 인물이나 다른 문헌에 나오는 짐승 같은 인물과 연관시키고 싶어합니다. 즉, 혼돈과 악과 관련된 사람이나 사건 또는 국가, 적대적인 것, 악마적인 것,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13장에 나오는 이 두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책부터 시작해서, 1세기 독자가 요한계시록은 편지이고 예언이며, 첫 번째 독자들에게 그들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1세기 독자가 이 첫 번째 짐승을 1세기 로마와 아마도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나 누구와 동일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하고 있는 일은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1세기의 맥락에서 이 영광스럽고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보고 왕좌에 앉은 황제를 봅니다. 그는 평화와 이 모든 축복과 번영을 누리고 그들은 그에게 충성을 바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요한이 로마 제국이나 황제 자신을 짐승 같은 인물로 묘사한 것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뱀인 용과 관련된 이 짐승 같은 인물입니다. 사실 이 짐승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이 첫째 짐승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고 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용이 자기의 권세를 짐승에게 맡깁니다.

이제 짐승은 용의 대표자가 되었고, 그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들을 짐승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사회와 로마 상업에 참여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충성을 바칠 기회에 참여하는 것은 보기만큼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배후에는 바로 용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있다고 존은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 누구입니까? 즉, 짐승 1위는 제국, 숭배를 요구하는 황제, 로마제국의 형태로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 어쩌면 황제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짐승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둘째 짐승인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면 둘째 짐승 역시 첫째 짐승과 용과 매우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었지만 용처럼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두 번째 짐승은 다시 용의 자손입니다. 그는 용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이르되,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자기를 위하여 행사하였다 하더라.

그러므로 11절부터 18절까지에서 셋째 짐승 곧 둘째 짐승인 땅에서 나온 짐승의 주요 기능은 첫째 짐승인 로마 제국과 황제. 아마도 두 번째 짐승은 아마도 이교 숭배나 황제 숭배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육성하고 요구하기까지 한 지역

엘리트들을 상징했을 것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참여하는 형태이거나 일급 도시에 건설되고 존재했던 지역 사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언급된 것입니다. 아마도 두 번째 짐승은 엘리트, 또는 적어도 누구든지, 숭배를 장려하고 육성하며 숭배를 강요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황제는 다시 황제 숭배 행사를 통해 제국 숭배의 전체 시스템을 통해 로마 제국과 황제를 숭배합니다., 심지어는 이교 숭배를 하고 로마 여신으로 관심을 돌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이 그것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나타낼 것입니다. 14절은 흥미롭습니다. 13절에 보면 둘째 짐승인 그가 크고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할 권세를 받은 이적을 인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였더라 그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다시 말하지만, 짐승의 형상을 세운다는 것은 황제를 기리는 여러 지역의 신사를 가리키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다시 속이는 것, 14절에 나오는 땅의 거민들을 속이는 능력,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용에 대한 묘사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그는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의 핵심은 마치 요한이 사람들이 이 거대한 제국과 그것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 그리고 로마 제국의 모든 화려함과 광채를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이 계략의 일부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탄 자신에게 돌아가는 기만적인 계략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독자들을 속여 짐승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자들이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체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시 John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셨나요? 그는 1세기 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첫째 짐승인 로마제국, 황제를 홍보하는 일을 맡은 자들을 대표하는 둘째 짐승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16절과 17절에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18절, 나는 유명한 숫자 666인 18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낼 수 없으며, 그것으로 온갖 엉뚱한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고 싶은 한 가지 사례는 제가 미국 미네소타에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기독교 음악 축제에 갔는데 입장하려면 손목 태그가 있어야 했는데 모두 번호가 있었고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처음 6~7개의 숫자는 동일했고, 마지막 3개는 식별이 변경된 숫자였습니다. 이는 이벤트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신분증이었습니다. 받자마자 내 것을 보았는데 마지막 세 숫자는 666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큰 일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런 것을 입는 것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숫자를 보는 현대의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666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666의 자동차 번호판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무엇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에 비추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선, 이 본문의 현대적 적용에 대해 생각할 때 적용해야 할 첫 번째 명백한 원칙은 요한이 무엇을 의도했을 수 있었고 그의 독자들이 무엇을 이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생각에 개인에 내장된 컴퓨터 칩, 신용 카드, 인터넷 또는 특정 인물(사담 후세인이든 다른 특정 개인이든)에 관한 모든 종류의 현대 추측을 자동으로 배제 합니다. 1세기 작가와 독자의 지평. 더욱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특히 665 이후와 667 이전에 자연스럽게 숫자 666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충성을 바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 표를 받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은 단순히 숫자가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참여하려는 독자들의

의도적인 행위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아마도 성도들이 그들의 신원을 나타내는 인이나 표를 받는 7장의 대응 부분으로 상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인 또는 표(666)는 첫째 짐승의 추종자들, 즉 로마 제국 또는 황제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모든 가능성 중에서 설득력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숫자 666이 아마도 더 잘 알려진 카이사르 중 한 명인 네로(Nero)라는 이름의 철자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네로 이후 오래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가혹한 처우와 잔인함, 사악함으로 유명한 네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의 현재. 따라서 666은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 Nero에서 발생한 작업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악과 혼돈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는 시도에서 악이 이제 황제와 독자들이 직면한 상황에서 다시 성육신한 것을 봅니다.

둘째, 666이 완전수 7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66은 사악한 삼위일체에 해당하거나 666은 용, 짐승 번호 1, 짐승 번호 2에 해당하며, 완전수 7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메시아, 성령의 경건한 삼위일체와 함께. 그러나 어쨌든 이 본문을 다시 종합해보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이 책에서 1세기 하나님의 백성이 겪었던 갈등의 진정한 본질을 더 깊고 자세하게

탐구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어떤 연령대에서도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갈등의 진정한 본질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갈등, 사탄의 시도와 진행 중인 싸움을 활성화시키려는 그의 능력, 인간과 기관이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세우도록 영감을 주는 그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반대하며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그런 다음 12장과 13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투쟁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불경건한 압제 세력에 저항할 수 있지만 압제와 심지어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순교 또는 죽음.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능력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독자들에게 여러분의 진정한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실제 전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Paul이나 John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지만 그 싸움의 본질은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황제나 로마제국과의 혈육전이 아니고, 여러분의 진정한 싸움은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지상 전투 뒤에는 진정한 종말론적 방식으로 존재하는 천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투의 진정한

본질을 알면 독자, 12세기와 13세기의 독자, 그리고 어떤 세기의 1세기 독자도 자신을 신으로 높이는 사회나 정부, 사람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더 나은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또한 억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해석 방법론의 적용이 어떻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고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는 또한 우리가 그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길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받은 성경으로 고백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입니다.